

서민금융기관 규제 확 푼다

금융위, 여신전문회사 영업범위 대폭 확대 추진

직불카드로 펀드 가입...저축은행 지점설치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불카드로 펀드나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영업 지역이 넓어지는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강연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카드로 펀드 가입**...카드 결제범위 확대=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카드와 캐피탈, 리스 등 여전사에 펀드 판매업 및 대출 중간사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전사들이 기업대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중간사 업무도 허용할 계획이다.

물품 또는 용역으로 매매하게 규정되었던 신용카드 결제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펀드매입, 지방세 등에 대한 카드결제 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카드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또 결제와 함께 현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의 경우 펀드 매입이나 예·적금 결제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고객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제기나 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를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 완화**=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여러 요건 중 ‘최근 2년간 임직원 이직이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지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을 서울, 인천, 부산 등 11개 구역으로 나눈 것을 6개 구역으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이 경

우 현재 1개 구역으로 제한된 개별 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이 넓어진다.

법적으로 써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줄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 신협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구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 읍·면·동에서 해당 시 전체로 확대하고 조합원 1명이 신협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신협은 조합원을 광산구에 있는 동에서만 모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광주시 전체의 모든 동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초고속인터넷 가입 첫, 1,500만명 돌파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처음으로 1천500만명을 넘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천503만1천833만명에 달해 처음으로 1천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3월말 1천497만775명에 비해 한달만에 6만1천58명이 늘어난 것이다.

업체별로는 KT가 664만8천여명으로 시장 점유율 44.2%를 차지했다. 2위 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은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등의 여파에 따라 3월말 362만4천여명에서 4월말 361만여명으로 주요 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 점유율이 24%로 다소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물가 올라도 카드는 ‘평평’

올들어 사용액 121조 ... 21% ↑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서비스 제외)은 121조3천99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85% 늘었다. 5월 한달 동안의 카드 사용액도 25조2천75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9.99%, 전월대비 2.33% 증가했다.

국내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원자재값 급등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고 있는 것이다.

카드소비액이 급증한 1차적인 원인은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 명목 사용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4.9% 올랐으나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5.9%나 뛰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25.3%나 치솟았다.

실제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씨카드의 올들어 4월까지 업종별 결제금액을 보면 주요소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전에 비해 3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형 할인점 결제금액도 16.6%나 늘어나 소비자들이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를 쉽게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레저(31.3%), 건강식품(19.3%), 여행(17.1%), 학원(14.7%), 백화점(13.1%) 등의 업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올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대인 점을 감안하면 명목 사용금액 증가만으로 20% 수준의 카드소비 급증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업계에선 작년 이후 카드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각종 할인과 적립 등 혜택을 늘림에 따라 전체 소비에서 카드결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카드 사용금액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호조 불구 내수 부진 물가 오름세도 확대 지속”

기획재정부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노력 필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커지고 있어 경기위축을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등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5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유가 등으로 물가 오름세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교역조건 악화와 고용부진 등으로 내수부진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4월 광공업 생산이 투자릿수(10.5%)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속도가 둔화됐고, 4월 소비재판매(5.8%)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전월 대비로는 0.2% 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4월 설비투자추세(-2.0%)는 운수장비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

비 등 기계류 투자감소로 부진이 지속했으며 취업자는 임시·일용직이 대폭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도 부진해 전년 동월대비 19만1천명 증가에 그쳤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4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5개월과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제조업 재고순환은 3개월 연속 경기둔화 영역으로 이동,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정부는 다만 5월 수출이 개도국 및 자원수출국에 대한 호조로 전년 동월비 27.2% 증가했으며, 4월 경상수지도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개선되면서 적자 폭이 전년 동월보다 줄어든 15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4.9% 상승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요리는 ‘내가 최고’

프랑스 요리대회에 참가한 요리사들이 조리기구를 들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세계적 요리사 단체인 ‘셀 데 로피띠르’ 한국지부는 5일 숙명여대 사회교육관에서 제 1회 프랑스 요리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 우승자는 한국을 대표해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시 실명 공개”

백 공정위장, 은행 환헤지 상품 ‘키코’ 불공정 여부 검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으며 명단에 포함된 업체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일벌백계하는 차원의 법 집행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점이 주어지고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상습적 위반업체로 본다”며 “다른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개량화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는 집중 관리하고 또 다시 위반했을 때는 해당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최근 상습 위반업체인 한국도기계발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상습위반 업체의 전체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인

텔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제제가 다국적 IT 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텔과 MS를 제재하고 쉘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헤지상품인 ‘키코’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불티난 中·베트남 펀드 올들어서만 5조원 손실

중국·베트남 등의 해외 증시부진으로 작년에 불티나게 팔렸던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올해 들어 벌써 5조원 가까운 평가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천244개 해외 주식형펀드(공모와 사모 합계)를 대상으로 올 들어 2월까지 운용손익을 추정한 결과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규모는 4조7천441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드 유형별로 보면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주식’펀드가 4조6천222억원의 평가손실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이중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국주식펀드가 3조6천9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인도펀드와 베트남펀드도 각각 3천858억원, 3천709억원 순손실을 냈다.

반면 ‘아메리카주식’펀드는 같은 기간 2천980억원의 평가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라틴펀드와 브라질펀드가 각각 2천221억원, 772억원 평가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적 5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792개 공모 해외 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베트남펀드가 -37.69%로 가장 부진했고 이어 인도펀드(-20.99%), 친디아펀드(-20.53%), 일본리츠재테크펀드(-18.16%), 중국펀드(-16.97%) 등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브라질펀드(22.08%), 라틴주식펀드(13.64%), 러시아주식펀드(10.15%) 등은 긍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주의 하세요”

금감원, 주부·고령자 대상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주춤하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올해 3월부터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당하기 쉬운 주부와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방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73건에 머물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3월 488건, 4월 432건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그동안 인터넷과 언론, 옥외광고관 등을 통해 피해 방지 안내를 했지만 주민 피해계층인 고령자와 주부 등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과 주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단체 등 교육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소비자보호센터의 연도별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월별 소비자교육 일정에 해당교육 내용을 배치키로 했다. 올해 6월에는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등 787명을 대상으로 10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철근값 t당 8만원 인상

현대제철 등 ... 건설업계 부담 커질듯

국제적으로 고철값이 뛰면서 철강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 건설업계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오는 9일 출하분부터 철근 판매가격을 t당 8만원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13mm 두께 고정격 철근의 경우 t당 가격이 94만1천원에서 102만1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동국제강도 지난 3일부터 철근 가격을 t당 8만원씩 올린 상태다.

이같이 철근값이 뛰는 이유는 국내의 시장에서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이 한 달 새 t당 11만원 가량 급등하는 등 원가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철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지역은 작년 말 1t에 614달러였다가 최근 1천97달러로, 미주지역은 628달러였던 가격이 1천달러로 올랐으며 일본 도쿄제철도 이달 들어 철근값을 t당 5천원 인상했다. /연합뉴스

내년 ‘광주 광엑스포’ 총회 기간 세계 ‘빛의 도시’ 대표 대거 참석

“2009 광주 세계 광엑스포(光EX-PO)”에 세계적인 빛의 도시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 빛의 도시 연합체인 ‘국제 빛의 도시연합(LUC) 2009 연차 총회’가 내년 광주 세계 광엑스포(10월9일~11월5일) 기간 동안 열린다. 시는 광주, 인천, 프랑스 리옹 등과 총회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LUC집행위가 광주와 인천 공동 개최를 권유함에 따라 인천과 함께 총회를 열게됐다. 총회기

간은 4~5일.

이에 따라 광엑스포는 LUC 회원 도시 관계자 50명과 필립스 등 해외 유명 조명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총회 개최를 계기로 광주시가 야간경관 조명과 빛의 축제 부문을 선도하는 LUC 회원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R&D 및 Process engineer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1	02-460-5833
동부화재 광주 고객서비스팀	[광주]TM센터/광주지역 제1기 TM시원(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2	062-220-8500
지성지앤비	맥 디자이너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06/12	062-227-0554
광명직업전문학교	실내건축 분야 정규직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2	062-529-3000
신광약품	재무관리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3	062-653-8432
쌍용자동차서광주영업소	[경기/영남]신입 및 경력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3	062-383-3434
메트라이프생명보험	[광주 전체]신입 및 경력 FSR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3	062-457-4400
가동건설	토목현장시공 경력사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6/13	062-364-0900
신일가스	거래처매출 및 수금관련 전산입력 및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4	062-951-0011
㈜위드커뮤니케이션	삼성전자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요원 아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4	062-250-3500
vip여행사	여행사무원(OP) & 항공 경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6/14	062-233-6611
HRN	[연봉2400만/주5일근무] SK텔레콤 114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6/16	011-9473-1425
엘지유희화장품남부지사	교육강사 및 피부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671-5285
트라이엄프인테리어(홍콩) 리미티드한국지사	트라이엄프 백화점 판매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7	062-524-070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